

農村定住環境의 整備手法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thod of Settlement Environment in Rural Area

金 益 煥**

Kim, Ick Hwan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he directions for the settling environment improvement of 244 Eups and Myeons in the Kyung buk province, depending on their regional type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

1) According to the index of general estimation, each regional group is classified into the developing country, suburban country, flatland country or mountain country.

2) The regional type is classified into densely-inhabited district, less-dense district, non-developing district or perishing district.

3) The results of the dwelling environment estimation pointed out that social protection, living convenience, and neighborship are important factors for environmental improvement, depending on the regional type.

From above, each region has different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estimation structure. It is suggested to establish improvement directions, based on them.

I. 序 論

1. 研究의 目的

1960년대에 이르러 모든 國家施策이 성장 제1주의 開發哲學으로 契約됨에 따라 국토개발부문에 있어서도 도시를 거점으로 하는 소위「據點開發方式」이 主導되어 왔다.

그 결과, 도시·농촌간의 지역 隔差는 深化되고, 급기야는 「離村向都」라고 하는 농촌 인구의 大都市로의 流出현상이 가속화 되어 왔다.

최근, 성장거점개발론에 대한 강한 비판과 함께 농촌 지역의 정주권 개발론이 제기되어 여러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지역 격차의 해소는 물론, 지역간 인구 偏在化 현상은 여전히 深化되고 있다.

*이 논문은 1994년도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 되었음.

**금오공과대학교 건축공학과 부교수

이로 인해, 도시 지역에서는 인구 및 산업의 過密·集積에 의해 생활 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농촌 지역에서는 過疎化현상에 의해 생산 및 생활 활동이 정체·쇠퇴 되는 등, 農村社會의 基盤維持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地域間의 人口 偏在化현상은 국토 자원의 有限性を 전제로 한 오늘날 우리나라의 國土의 條件에 비추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따라서 인구의 지방분산 劃策이 국토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인구의 지방분산을 위한 농촌지역의 정주환경 계획은 오늘날 과소화하는 농촌지역의 再生이라는 면뿐만 아니라, 한편에서는 도시로의 인구 집중 현상을 완화시키고, 도시 환경의 보전적 역할도 동시에 담당하므로 보다 긴급의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농촌 지역은 주민의 意識水準 향상으로 인해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함께 정주 환경에 대한 정비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도시권 확장과 농촌 생활권의 확대등으로 인해 混住化 현상이 현저한 도시근교농촌부는 종래의 농촌 공간에 대해 정주 공간으로서 새로운 변화를 강요당하고 있다. 또한, 최근 국민의 價値觀은 物質的 豊요보다 精神的 욕구 및 자연에의 希求가 강하여 소위 「田園 居住의 型」이 거론 되는 등, 정주 空間으로서 농촌空間의 重要性이 再認識되고 있다.

따라서, 농촌의 정주환경 계획에 관한 학문적 研究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대한 인식과 함께 여러 시점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지만, 주로 주택이나 생활 시설 등에 대한 物的 事實研究와 일부 지역에 한정된 物的 整備에 관한 단편적 연구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농촌계획의 목표는 도시화의 파급과 생활권의 확대등으로 인해 廣域化 되는것에 의해, 종래의 시설이나 도로로 대표되는 點·線의 정비로부터 보다 廣域의 面的인 정비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面的인 정비는 무엇보다도 지역환경 구조의 파악을 필요로 하며, 또한 지역환경구조와 주민의 가치관의 관계로부터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농촌 지역의 定住環境構造는 지역 固有의 環境形成史에 의해 지역마다 固有性이 존재하고, 定住環境에 대한 요구는 각각의 지역이 갖는 고유한 환경적 조건과 주민의 諸屬性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적 課題下에서 다루어져야 할 농촌 정주환경계획은 단순히 인구 밸런스 (balance) 유지만을 위한 과거의 농촌으로 復元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 지역이 갖는 지역별 고유한 환경적 조건에 대한 的確한 이해와 함께, 지역주민의 다양한 가치관에 注目하여 지역별 정비 수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지역별 고유한 환경적 조건을 규명하기 위해 지역을 類型化하고, 정주환경에 대한 주민의 평가구조로부터 정주환경의 계획요소를 추출하여 地域 類型別 整備 모델을 提示하고자 한다.

2. 研究의 範圍 및 方法

本稿에서 다루고자하는 연구의 範圍는 먼저 농촌지역¹⁾을 유형화하고, 類型別 代表地域을 抽出하여 이들 각 지역에 대해 주민의 정주실태 및

1) 도시, 농촌에 대한 개념 구분은 극히 애매하다.

일찌기 서구의 고전적 사회학자들(P.Sorokin, L.Wirth)에 의한 도시, 농촌의 개념을 지리학적으로 구분하려고 하면 매우 애매해지며, 구조론상의 불확실한 이들의 개념대비를 계획론, 정책론에 인용하면 도시, 농촌의 양자택일론이 오히려 첨예화되어 도시는 대도시로 농촌은 산간, 오지촌으로 둔화된다는 지적이 있다.(山林芳郎, 農村計劃, 1984) 한편, 전국을 도시와 농촌의 2가지 개념으로 나누어 생각할 때, 도시와 농촌을 상호대립적 관계로 보는 「대립설」과 도시의 배경이 곧 농촌이라는 「배경설」, 도시와 농촌을 원래 상대적 의미로 보는 「상대설」 등 3가지 설(일본 도시센터편, 독일의 국토계획, 1961)을 들 수 있으나, 이것 역시 명확한 개념 구분이 어렵다. 이러한 사회학적 개념에 대해 인구 규모를 대상으로 한 행정적 기준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인구 5만 이상은 市級으로 하며 都市로 규정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 郡部를 농촌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행정적 기준에 의한 郡部를 농촌지역으로 한다.

거주환경평가에 관한 분석으로 한정하며, 空間的 範圍는 경상북도의 244 邑·面²⁾(울릉도 제외)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한 것은 국토적 레벨에서 ① 인구밀도가 148人/km²(1994년)로서 타도에 비해 비교적 저밀도로서 과소촌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점, ② 농지율이 17.4%로서 타도에 비해 높으며 농가수 및 쌀 생산량이 전국의 16.8%, 16%를 차지하는 등, 농업적 지역성이 비교적 강하다는 점, ③ 경주, 안동 등 전통문화 중심지가 입지하고 있으며, 지역마다의 독특한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 등의 이유에서이다.

또한, 邑·面을 대상으로 한 것은 ① 지역 유형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입수가 가능한 최소의 행정단위라는 점, ② 기초적 자치체로서 읍·면은 행정의 능률보다 지리적, 역사적 전통성을 중시하고 있으며 대체로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이다.

한편, 연구의 방법은 먼저 농촌지역을 유형화하기 위해 총 20개의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경상북도의 244 邑·面을 대상으로 각 郡의 통계연보(1994년)를 통해 데이터를 가공처리하여 SPSS PC+ 통계수법을 이용하여 유형화 하였다. 이어, 유형별 대표지역을 추출하여 각 지역에 대해 정주환경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 및 중요도평가를 구하기 위해 18항목의 評價指標를 설정하여, 이를 설문조사하고 그 결과를 SPSS PC+를 이용 통계처리 하였다. <표 1>은 설문지 배포 및 회수율을 나타내고 있다.

• 조사기간

- 1차 조사기간 : 1994년 12월 4일 - 1994년 12월 7일 (4일간)
- 2차 조사기간 : 1995년 7월 1일 - 1995년 7월 9일 (9일간)

<표 1> 설문지 배포 및 회수율

조사 지역	배포수	회수수	회수율
칠곡군 약목면	70매	56매	80.0%
김천시 아포면	70매	58매	82.8%
상주시 중동면	70매	58매	82.8%
의성군 옥산면	70매	67매	95.7%
계	280매	239매	82.5%

II. 農村地域의 類型化

1. 유형화의 의의 및 방법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지역마다 固有한 環境形成史에 의해 독특한 지역적 환경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 환경조건에 대응한 지역구조의 파악이 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지역 類型化의 연구는 이러한 지역구조 把握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지역의 특성 및 정주환경을 규정하고 있는 환경적조건을 細明할 수 있으며 또한 지역간의 비교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농촌지역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는 일본인에 의해 최초로 소개되었으며³⁾, 그 후 지리학 분야⁴⁾에서 체계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 또한 유형구분에 관한 연구로서는 일본의 경우 지리적 입지조건에 따라 평지촌, 산촌, 임해촌 등의 분류⁵⁾와 주민의 산업구조, 기능에 따른 구분으로서 농촌, 임업촌, 광산촌, 어촌등으로 분류한 연구의 업적이 있다.⁶⁾ 한국의 경우, 접근도를 기준으로 대도시근교 농촌, 산간농촌, 군사농촌, 해안도시농촌, 일반농촌지역으로 유형구분⁷⁾한

2) 읍을 도시로 보는 경우 (국토개발원: 인구정책의 조성, 김안제: 환경과 국토)와 농촌으로 보는 경우(홍경희: 한국도시연구, 고승제: 한국촌락사회사)가 있다. 따라서 읍의 위치가 대단히 유동적이다. 그러나, 읍은 면보다 행정면에서 어느 정도 강화되고 있지만, 그 이외에는 면과 큰 차이가 없다 (내무부: 地方行政 發達史)는 것으로부터 본고에서는 邑과 面을 포함한 郡部를 농촌지역으로 하고, 최근 市·郡 統合에 의한 市部의 邑과 面도 농촌지역에 포함시킨다.

3) 久間健一, "朝鮮農業經營地帶의 研究, 農業綜合研究所", 東京, 1950
 4) 徐贊基, "經營面에서 본 韓國의 農業地域 區分", 慶北大學校 論文集, 1962.
 5) 先鶴仁吉, "村落의 分類", 都市, 村落地理學, 東京, 朝倉書店, 1967.
 6) 新井浩, "集落分布と立地, 集落地理學講座1", 東京, 朝倉書店, 1957.
 7) 柳祐益, "農村地域의 空間的 特性과 開發戰略," 韓國農村經濟研究所, 1985.

업적과 행정구역 및 인구크기에 따라 자연부락형 농촌, 소도읍형 농촌, 도시근교농촌지역으로 분류한 것이 있고⁸⁾, 지역공간, 경영구조, 시설정비수준에 따라 도시근교부, 산간부, 평지부로 분류한 연구⁹⁾가 있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방법은 먼저, 경상북도의 244 읍·면을 유형화하기 위해 지역의 종합적 분석의 시점으로부터 「空間的」, 「人的」, 「生産的」, 「物的」 등의 개념틀을 설정하고 각 개념틀과 관련한 총 20개의 평가지표를 선정하였다(표 2).

선정된 지표에 대해 경상북도 각 郡의 통계연보(1994년)를 통하여 데이터를 가공처리하여 요인분

석을 행하고, 이어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행하여 유형화 하였으며, 각 그룹(Group)별 주 성분분석 스코어를 이용해 意味를 부여 하였다.

2. 유형화 분석

1) 요인분석

앞서 선정한 20개의 평가지표에 대해 요인분석한 것이 <표 2>이다. 여기서 고유치(Eigenvalue) 1.0이상인 제1주성분까지이나 제3주성분의 고유치(1.74) 및 기여율(7.9)이 크게 둔화됨으로 분석은 제2주성분까지로 한다.

<표 2> 평가지표 및 주성분 득점

개념틀	항 목	지 표		주 성 분 득 점	
		지 표	지 표 내 용	제1주성분	제2주성분
공간적	취락의 입지조건	1. 자연부락평균면적(km ²)	총면적 / 자연부락수	-.05496	-.75941
		2. 자연부락평균호수(戶)	총세대수 / 자연부락수	.70976	.31607
		3. 경지율(%)	경지(전.답)면적 / 총면적	-.01735	.90910
		4. 임야율(%)	임야면적 / 총면적	-.06506	-.91958
	접근성	5. 중심도시와의 거리(km)	군청소재지와의 거리	-.17170	-.38425
		6. 도로 포장율(%)	포장도로길이 / 도로총연장길이	.14928	.36040
생산적	영농구조	7. 戶당경지면적(ha)	경지(전.답)면적 / 농가구수	-.82113	-.20431
		8. 농업진흥지역면적율(%)	농업진흥지역 / 경지(전.답)면적	-.23931	.56986
		9. 戶당경운기대수(대)	경운기대수 / 농가구수	-.81402	.04722
		10. 戶당추곡수매실적(kg)	추곡수매량 / 농가구수	-.50819	.51763
인적	인구현황	11. 인구밀도(人/km ²)	총인구 / 총면적	.69850	.52234
		12. 전입율(%)	전입인구 / 총인구	.50595	.01788
		13. 전출율(%)	전출인구 / 총인구	.44241	-.16236
물적	시설 및 환경	14. 상설시장수	상설시장수 / 1000명	.00005	-.27630
		15. 금융기관수	새마을금고수 / 1000명	-.02249	-.08361
		16. 약국수	약국수 / 1000명	.73792	.17171
		17. 이.미용소수	이.미용소수 / 1000명	.56329	.02148
		18. 노인정수	노인정수 / 1000명	-.47185	.02357
		19. 교원수	교원수 / 국교 총학생수	-.67713	-.34468
		20. 의사수	의사수 / 1000명	.68923	.08928
Eigenvalue				6.27824	3.47594
Proportion				28.5	15.8
Cumulative				28.5	44.3

먼저 제1주성분은 +측에 자연부락평균호수, 인구밀도, 전입율, 약국수, 의사수, 이.미용소수 등의 평가지표가 크게 기여하고 있고, -측

에는 호당경지면적, 호당경운기대수, 호당추곡수매실적, 교원수 등의 지표가 높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측에 기율수록 호

8) 鄭址雄, "韓國의 農村-그 構造와 概念", 서울대 출판부 1984

9) 金益煥, "韓國農山村における類型化による地域特性の分析", 日本都市計劃學會論文集, 1986, pp127-132.

수 및 인구밀도가 높고 생활시설정비수준이 비교적 양호한 「도시적인 농촌지역」으로 볼수 있고, -측에 기술수록 경지면적, 경운기대수, 추곡수매실적 등의 기여가 높은것으로부터 「전형적인 농업지역」으로 볼수 있다. 이것으로부터 제1주성분은 「都市化 정도」에 관한 축으로 해석된다.

한편, 제2주성분은 +측에 경지율, 농업진흥지역면적, 추곡수매실적등이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측에는 자연부락평균면적, 임야율등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측에 기술수록 「평지농촌지역」으로, -측에 기술수록 「산간농촌지역」으로 볼수 있으며, 이것으로부터 제2주성분은 「立地的條件」에 관한 축으로 볼수 있다.

2) 군집분석에 의한 지역의 유형화

앞서 행한 요인분석에서 얻어진 2개의 주성분에 대해서 각 지역이 얻은 득점을 기초로 군집분석(포준 뉴크리드거리법)을 행한 결과, 6 Group으로 분류가 가능하였다. 각 Group에 포함된 읍·면의 내용은 <표 3>과 같다.

또한 이들 각 Group별 지역의 주성분특점을 제1, 2주성분축에 plot한것이 <그림 1>이다.

여기서 각 Group에 대해 비교적 지역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4개의 그룹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기로 한다.

먼저, A Group은 제1주성분 축에서는 +측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제2주성분 축은 평균치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는 평지 및 산지의 중간지대에 위치하며 도시적 시설이 강화된 「도시화 진행 농촌부」로 해석된다. B Group은 제1, 제2주성분축에 있어서 비교적 +측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므로, 이는 대체로 평지부에 입지한 것으로, 생활시설이 어느정도 정비되고 중심도시와 의존도도 비교적 높은 「도시근교 농촌부」로 볼수 있다.

또한 C Group은 제1주성분 축은 -측에, 제2주성분 축은 +측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므로 이 그룹은 평지부에 입지한 전통적 농업지역으로서 「평지 농촌부」로 볼수 있다.

D Group은 제1주성분 축이 평균치에, 제2주성분 축은 -측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므로 이 그룹은 「산간 농촌부」로 해석된다.

<표 3> 유형별 읍·면 분포

유 형	각 읍·면
A Group (도시화 진행농촌)	울진군(울진, 평해, 죽변, 후포)봉화군(봉화)영풍군(풍기)예천군(예천)의성군(의성)구미시(선산)성주군(성주)고령군(고령)대구시(화원, 논공, 현풍)칠곡군(왜관, 약목)군위군(군위)청도군(청도)경산시(하양)경주시(갑포, 안강)영일군(구룡포, 연일, 오천, 대송, 동해)청송군(진보)영덕군(영덕, 강구, 영해)
B Group (도시 근교농촌)	울진군(근남)예천군(용궁)문경시(마성, 산양)의성군(금성, 봉양, 안계)상주시(함창, 화서)구미시(장천, 고아)김천시(아포, 어모)성주군(초전)대구시(다사, 옥포)칠곡군(북산)군위군(의흥)청도군(화양, 풍각)경산시(진량, 자인, 압량)영천시(금호, 신령)경주시(진천, 외동, 서)영일군(홍해, 청하, 대보)
C Group (평지농촌)	봉화군(물야, 봉성, 법전, 상문)안동시(풍산, 의용, 북후, 서후, 풍천, 일직, 남후, 남산, 입하, 녹천)영풍군(이산, 평은, 문수, 장수, 안정, 봉현, 순흥, 부석)예천군(용문, 하리, 감천, 보문, 유천, 개포, 지보, 풍양)문경시(호계, 산북)의성군(단촌, 점곡, 사곡, 가음, 비안, 단밀, 안평, 안사)상주시(중동, 낙동, 청리, 공성, 내서, 모동, 모서, 화동, 외서, 은척, 공검 이안)구미시(무을, 옥성, 도개, 해평, 산동)김천시(농소, 남, 감문, 봉산, 감천, 조마, 구성)성주군(선남, 용암, 수륜, 대가, 벽진, 월항)고령군(덕곡, 운수, 성산, 다산, 개진, 우곡, 쌍림)대구시(하빈, 유가, 구지)칠곡군(석적, 기산)군위군(소보, 우보, 산성)청도군(각남, 각북, 이서, 매전)경산시(와촌, 용성, 남산, 남천)영천시(청동, 호산, 화북, 화남, 임고, 고경, 북안, 대창)경주시(내남, 산내, 현곡, 강동, 천북)영일군(신광, 기계)영덕군(병곡)영양군(입암)
D Group (산간농촌)	울진군(북, 원남, 기성, 온정)봉화군(춘양, 재산, 명호)안동시(길안, 입동, 예안, 도산)영풍군(도산)예천군(상리)문경시(문경, 가은, 동로, 농암)의성군(옥산, 춘산, 신평)상주시(화북, 화남)김천시(대항, 지례, 부항, 대덕, 중산)성주군(가천, 금수)대구시(가창)칠곡군(지천, 동명, 가산)군위군(효령, 부계, 고로)청도군(운문, 금천)영천시(자양)경주시(양북, 양남)영일군(송과, 죽장, 장기, 기북)청송군(청송, 부동, 부남, 현동, 현서, 안덕, 파천)영덕군(남정, 달산, 지품, 축산, 창수)영양군(영양, 청기, 일월, 수비, 석보)
E, F (기 타)	예천군(호명)문경시(영순)의성군(구천, 단북, 다인)상주시(사벌)김천시(개령)

Ⅲ. 地域 類型別 農村定住實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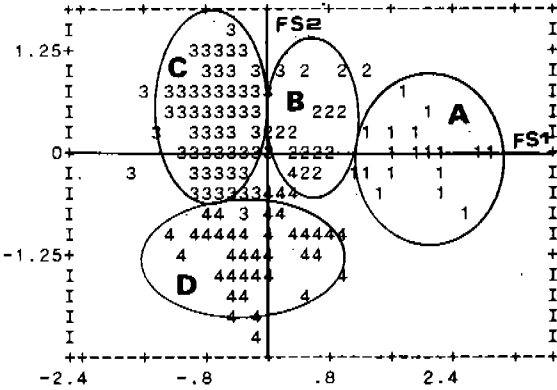
1. 지역별 정주환경 특성

1) 칠곡군 약목면(이하 A지역) : 칠곡군의 西北部에 위치하고 있으며, 西로는 김천시, 北으로는 구미시, 東南으로 군청소재지인 왜관읍과 접하고 있으며, 군청소재지와의 거리는 7.31km로서 접근성이 양호한 편이다. 면적은 30.32km²로서 郡內의 다른 면과 비교하면 제일적은 규모이지만 인구수에 있어서는 다른 면의 2배이상을 보이고 있는 고밀도지역(인구밀도 466인/km²)이다. 전·출입이 빈번한 지역이지만 전입이 전출보다 많은 것으로부터 인구집적지역으로 볼수 있으며, 생활시설의 정비수준이 다른지역에 비해 양호한 도시적 성격이 강한 지역이다.

2) 김천시 아포면(이하 B지역) : 김천시의 西端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미시와 인접하고 있다. 군청소재지와의 거리는 15.5km이지만 구미시와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도시와의 접근성은 양호한 편이다. 인구밀도(169인/km²)는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고밀도이고 전·출입이 비교적 심한 지역으로서 전출이 전입보다 많은것으로부터 과소화진행지역으로 볼수 있으나, 생활시설의 정비수준은 다른지역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도시근교 농촌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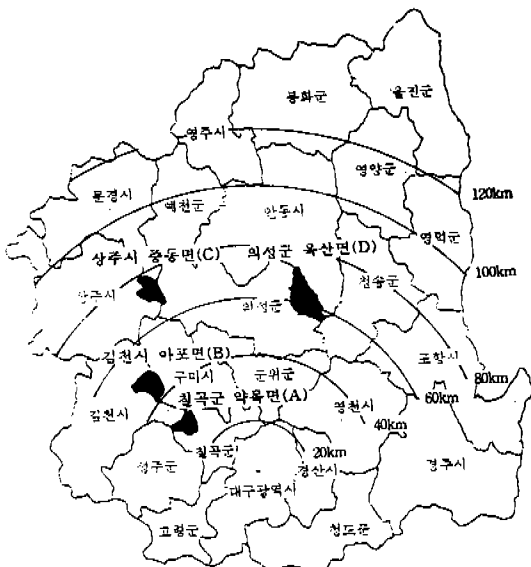
3) 상주시 중동면(이하 C지역) : 西로는 상주시 사벌면과, 東北으로는 예천군과 접하고 있으며 평야가 비교적 넓게 분포되어 있는 평지 농촌지역이다. 생활환경시설의 정비수준은 대체로 不備하며 인구밀도는 58인/km²로서 비교적 저밀도이고 전출·전입이 정체되어 있으나, 호당경지면적율이 상당히 높은 농업적 지역성이 강한 전통 평지 농촌지역이다.

4) 의성군 옥산면(이하 D지역) : 지정학적으로 경상북도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지율에 비해 임야율이 극히 높은 전형적 산간 농촌지역이다.



〈그림 1〉 제1, 제2주성분 Plot

이상 4개의 그룹으로부터 각 그룹에 대해 평균치에 근접한 지역을 추출한 결과, A 그룹은 「칠곡군 약목면」, B 그룹은 「김천시 아포면」, C 그룹은 「상주시 중동면」, D 그룹은 「의성군 옥산면」등, 4개의 지역이 추출 되었다(그림 2). 따라서 이들 지역을 분석의 對象으로 삼고자 한다.



〈그림 2〉 대상지역의 위치